

##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:

### 기본 요건, 자격 분석,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

2023년 2월 1일

[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: Basic Requirements, Qualification Analysis, and Lingerin Questions | Energy Law Blog \(energylawinfo.com\)](#)

By [Ryan Roberts](#) & [Ariel E. Debin](#)

Originally published Feb. 1, 2023

미국의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은 수년간 정부 조달 업체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는 요인이었습니다.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보통 잘 알려진 격언 속 “채찍”의 형태로 나타났는데, 이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및/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 치를 수 있는 혹독한 대가들을 의미합니다. (수십억 달러의 부정청구법(False Claims Act) 통상협정법 (Trade Agreement Act) 합의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) 그러나 미 의회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(Inflation Reduction Act, IRA)을 통해 미 재무부가 (Department of Treasury) 원산지를 “당근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독특한 접근을 취했습니다. 즉, 명시된 “미국산 부품 사용” 요건을 충족하면, 특정 에너지 시설에 추가적인 보너스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이 새로운 당근을 만드는데 있어 미 의회는 정부의 자국산 부품 사용 정책에 대한 과거 경험을 크게 반영했습니다. 대부분 연방 교통국 (Federal Transit Authority, FTA)의 “Buy America” 규정들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산우선구매법 (Buy American Act)의 트위스트를 접목하였습니다. 그 결과, 미 의회는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하여금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 보다는 해당 산업 시설에 대한 보너스 세액 공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

미 재무부는 이러한 자국산 부품 사용 관련하여 다수의 에너지 시설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지침 발표를 준비중입니다. 그러나 지침 발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, 이 지침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. 한편,

현재 정확한 지침이 부재한 관계로 에너지 시설들은 기존 정부 조달 업체들에게 대신 지침을 요청해야만 합니다. 저희는 기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, 미 정부가 자국산 부품 사용 보너스 신용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고, 재무부 지침을 예측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질문들을 짚어 보았습니다.